

산업국가에서의 제2차 인구변천

정 성 호*

이 글은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된 제2차 인구변천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가 한국 사회의 출산력 변천에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차 인구변천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산업국가에서 출산력 수준이 대체수준 이하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하였다. 제1차 인구변천과 달리 제2차 인구변천은 종착점으로 인구의 균형상태를 상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변화는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결혼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삶의 양식, 결혼과 출산의 무관계성, 안정된 인구의 부재 등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제2차 인구변천은 이민자의 유입이 없으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의 결과로 인해 제1차 인구변천이론에 의해 예측된 인구보다 고령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제2차 인구변천에 대한 논의는 인구변천을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인구학적 변화를 밝히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제2차 인구변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저출산이다.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 중 결혼율의 감소, 초혼 연령의 상승, 이혼율의 상승, 소자녀 가치관 등 가족형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제2차 인구변천 내용에 포함된 인구학적 변수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러한 변인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유럽 사회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학적 변인 이외에 양성평등의 관념,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자녀 양육 및 교육 비용 등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을 이해하는데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큰 변인으로 볼 수 있다.

핵심단어: 제1차 인구변천, 제2차 인구변천, 저출산, 평균수명, 고령화, 양성평등

*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shc@kangwon.ac.kr

I. 인구변천과 저출산

지난 30년 동안 출산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수준에 이르고 있다. 대체수준 이하(합계출산율 1.5 혹은 이하)의 출산력 수준을 보이는 국가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저출산이 멈출 것인지, 출산율이 회복될 것인지 혹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쉽게 답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최근의 연구에서 Lutz(2006)는 장래에 출산율이 증가할 것인지 혹은 감소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업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저출산 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Eurostat (2005)는 EU 25개국을 대상으로 한 인구예측에서 UN의 중위치보다 훨씬 낮은 출산력 수준을 추정했다.

한국과 일본 및 유럽 국가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및 초저출산 현상은 출산력이 대체수준에 이르러 안정적인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종래의 인구학적 전망과 큰 차이를 보인다. 사실 출산력에 대한 미래 예측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큰 변화를 보였다. 예를 들어 1998년 당시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로 떨어진 국가가 급속하게 증가하던 때 UN은 모든 국가가 합계출산율 2.1로 수렴할 것이라는 종래의 가정을 포기하고 이후 수정하여 1.85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국의 경우도 저출산 문제는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고, 출산력 제고는 가장 긴박한 정책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83년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선진산업국의 저출산 단계에 진입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르고 있다. 통계청에서 최근 발표한 2008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출생아수는 46만 6천 명으로 2007년 49만 3천 명보다 2만 7천명이 감소하였으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도 1.25명에서 1.19명으로 2007년에 비해 0.06명이 감소하였다.

한편 저출산 및 초저출산과 같은 출산력 변천의 새로운 양상들은 인구학 분야에 새로운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가져왔다. 저출산 문제에 초점을 둔 McDonald(2005)는 저출산 국가를 합계출산율 1.5 이상에 도달한 그룹과 1.5 이하로 떨어진 그룹으로 나누었다. 더 나아가 그는 저출산 국가들이 모두 출산수준이 너무 낮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단 합계출산율이 1.3 혹은 1.4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1.6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1.6 수준

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가설을 내 놓기도 했다. 이 가설에 기초하여 정부는 출산력 수준을 1.6 이상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현재의 저출산 국가들이 미래에 출산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지속적으로 출산력이 떨어질 것인지를 밝혀줄 이론이 부재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Lutz((2006)의 ‘저출산 올가미 가설(The Low Fertility Trap Hypothesis)’의 관심은 저출산 국가에서 정부가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혹은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있다. 만약 저출산 올가미가 존재한다면, 출산 수준을 올리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¹⁾

제2차 인구변천(SDT: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에 관한 논의도 저출산 및 초저출산 추이를 설명하려고 시도로 볼 수 있다. 제2차 인구변천에 관한 논의는 주로 혼인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강조한다(McDonald, 2000; Van de Kaa, 2004). 인구변천의 광범위한 특성 때문에 서로 상이한 사회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구변천의 타당성과 확산을 검토하는 경험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인구변천을 경험적으로 밝히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인구변천이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국가별로 어떻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2차 인구변천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제2차 인구변천은 인구학적 행위에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으로 이미 상당히 논의가 진전되었으며, 여러 국가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둘째, 지난 40여 년 동안 산업사회에서 나타난 가족 관련 행위와 태도에서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은 여러 인구학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잘 인식되고 있다. Inglehart의 「선진 산업사회에서의 문화적 변동」, Giddens의 「친근성의 변환」, Bauman의 「유동적인 근대성」 등은 배우자, 가족, 분만 등에서의 특징 변화와 이들과 연관된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주장들을 확신시켜주는 연구들이다. 가정경제학을 전공

1) 저출산 올가미 가설은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인구학적 요소이다.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오는 요소로 미래에 잠재적 모친의 수가 적어지면 태어나는 아이의 수도 적을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사회학적 요소이다. 젊은 코호트의 이상적 가족 규모(ideal family size)는 실제의 낮은 출산력의 결과로 감소할 것이다. 셋째, 경제적 요소이다. Easterlin의 상대적 소득 가설의 첫 번째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출산력은 열망과 기대소득의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열망은 증가하는 반면 젊은 코호트의 기대소득은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저출산 올가미 가설은 이 3개의 요인들이 모두 미래의 출산력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이 가설이 타당하다면 예상되어지는 올가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인구정책이 시급하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는 학자들도 서구의 가족이 급격한 변화에 접어들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Goldin (2006)은 피임약의 보급, 교육기회의 증대, 결혼연기, 그리고 여성의 정체성과 직업에 관한 의식 변화 등을 예로 들면서 여성의 삶이 '조용한 혁명'(quiet revolution)을 맞이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셋째, 제2차 인구변천에 관한 연구는 인구학적 행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변화하는 가치관과 태도와 변화하는 가족 관련 행위 사이의 관계를 밝혀주는데 유용하다.

이 글은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된 제2차 인구변천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가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에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제2차 인구변천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인구변천이론과 제2차 인구변천의 상이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본 연구는 제2차 인구변천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주로 혼인, 동거, 이혼 등 인구학적 변인들의 변화 양상을 유럽의 사례를 통해 검토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제2차 인구변천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어 연구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II. 제2차 인구변천의 내용과 평가

제2차 인구변천 개념은 1986년 Lesthaeghe와 Van de Kaa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이 개념은 1960년대 후반 북서 유럽에서 시작된 출산력, 가족형성, 배우자 행위 등의 변화 등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제2차 인구변천에서는 인구학적 영역에서 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족생활과 자녀에 전통적인 가치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과 출산율이 대체수준 이하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포함한다.

제2차 인구변천의 개념은 이후 지속적으로 다듬어졌다 (Lesthaeghe 1995: Van de Kaa 1994, 2001, 2002; Lesthaeghe and Surkyn 2004). 사망률과 인구이동의 개념이 포함되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의 구조적 변화 (근대화, 서비스 경제와 복지국가의 성장, 고등교육의 확산), 문화적 변화 (세속화,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 자기표현과 자아만족의 중요성 등) 그리고 기술적 변화 (피임 채택, 새로운 정보기술의 확산) 등에 주목하였다. Van de Kaa에 따르면 제2차 인구변천은 자아만족, 선택의 자유, 자아발전과 라이프스타일 등 개인적인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출산억제와 부모가 되려는 동기 등 가족형성과 관련된 태도의 변화 등을 포함한다.

1. 제1차 인구변천과 제2차 인구변천의 비교

제2차 인구변천에 관한 논의는 제1차 인구변천과의 비교를 통하여 잘 이해될 수 있다. 제1차 인구변천은 18세기 유럽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사망력과 출산력의 감소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이후 개발도상국에서의 인구변화에도 적용되어 논의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제1차 인구변천의 종착점은 인구의 대체수준인 2.0명, 제로(0) 인구성장, 70세 이상의 평균수명 등의 특징이 나타나는 정지인구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제1차 인구변천은 궁극적으로 사망과 출산이 균형을 이루게 되어 이민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결혼을 통한 가족과 자녀로 구성되는 핵가족 형태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반해 제2차 인구변천은 종착점으로서의 균형상태를 상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변화는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결혼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삶의 양식, 결혼과 출산의 무관계성, 안정된 인구의 부재 등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제2차 인구변천은 이민자의 유입이 없으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의 결과로 인해 제1차 인구변천이론에 의해 예측된 인구보다 고령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경우 이민자 유입은 고령화를 저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의 규모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표 1> 제1차 인구변천과 제2차 인구변천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제1차 인구변천	제2차 인구변천
결혼	*혼인비율 증가, 초혼 연령 저하 *낮은 동거율 혹은 동거비율의 감소 *낮은 이혼율 *높은 재혼율	*혼인비율 감소, 초혼 연령 증가 *동거율 증가 *이혼율 증가, 조기 이혼 *낮은 재혼율
출산력	*혼인출산력의 감소 *불충분한 피임 *법으로 용인되지 않은 출산의 감소 *무자녀 가정의 감소	*추가적인 출산력 감소 *효율적인 피임 *혼외 출산의 증가 *무자녀 가정의 증가
사회적 배경	*혼인시 주요 고려사항: 소득, 직장, 주택, 건강, 교육, 안정성 등 *정치적, 시민공동체 네트워크의 사회적 결속력의 강화 *국가와 교회 등에 의한 강력한 1차 세속화 물결 *성역할 분리, 중산계급화 *신중한 결혼, 가족모델의 정착화,	*새로운 욕구의 등장: 개인적 자율권, 자아실현, 자기만족 등 *공동체 네트워크로부터의 격리, 사회자본에서 감성적, 정서적 형태로의 변화 *국가의 역할 약화, 2차적 세속화 물결, 성해방 *성역할의 균형성 증대, 여성의 경제자립도 증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열린 미래

자료: Lesthaeghe, R. and K. Neels (2005) p.28

로 기대되고, 결국 다문화 사회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제2차 인구변천은 가속화되는 고령화, 이민자들과 상이한 문화의 통합, 가족의 불안정성, 단독가구 및 미혼모의 증가 등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사회변화의 양상에 주목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제2차 인구변천은 제1차 인구변천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두 이론은 인구학적 속성과 사회적 속성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표 1 참조).

(1) 혼인율 추이

서구에서 제1차 인구변천은 결혼 연기 혹은 결혼 기피 등으로 알려져 있는 이른바 맬더스의 '예방적 조치'의 점진적인 악화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즉 제1차 인구변천이 진행되는 동안 초혼 연령은 낮아지고 결혼 비율은 증가되었다. 더 나아가 동거비율은 높지 않았다. 초혼 연령은 1960년대에 가장 낮았으며, 이후 이러한 경향들은 모두 바뀌었다. 즉 초혼 연령은 증가하였으며, 단독 가구와 결혼 전 동거 비율의 증가, 결혼을 대신하는 장기간 동거의 증가, 그리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결혼 밖에서 나타나는 출산의 증가 등이 빈번해졌다. 제1차 인구변천 동안 이혼 이후에 재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고 이에 따른 출산도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비해 제2차 인구변천 기간 동안에는 재혼보다는 동거 혹은 서로 별거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만혼 경향이 존재하지 않았던 중부 및 동부 유럽의 경우 만혼과 동거의 비율이 1990년 이후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을 통하지 않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점차 증가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부 유럽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2) 출산 시점

제1차 인구변천 기간 동안 출산력은 결혼과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이와 함께 피임은 출산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기혼자 중 자녀가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제1차 인구변천 기간에도 대체출산력 이하의 낮은 출산력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경제위기 혹은 전쟁 기간에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차 인구변천은 1960년대 새로운 변화의 물결과 함께 시작되었다. 첫째, 호르몬 피임과 자궁내 피임기구(IUD)의 보급 등 '피임혁명'을 들 수 있다. 둘째, 최초로 성을 접촉하는 연령이 낮아지는 이른바 '성 혁명'을 들 수 있다. 셋째, 성별에 따른 노동 분업에 의문을 갖는 '젠더 혁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세 개

의 혁명은 권위를 거부하고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강조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출산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부모가 되는 연령의 증가, 이혼으로 인해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 상실, 무자녀 부모의 증가, 다출산 가정의 감소 등이며, 이 결과 대체출산력 이하의 출산 수준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3) 사회적 배경

프랑스와 다른 몇몇 소규모 유럽 국가의 경우에서 나타난 초기 출산력 감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차 인구변천은 경제성장이 물질적 욕구를 높이고 물질적 생활 여건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1860-1960 기간 중에 가장 관심을 기울인 것은 가구의 실질 소득 향상, 일터와 주택의 여건 향상, 건강 수준의 향상, 대중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향상, 사회적 보호 체계의 구축을 통한 안전성의 제공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이러한 목표들은 주요 민주적 정당,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 교회들에 의해 공유되었고 고무되었다. 종교적 조직의 경우 이러한 견해는 우선적으로 결혼생활의 신성함에 그 기초를 두었으며, 혼인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이 중요하다는 견해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확산될 수 있는 부도덕과 무신론을 경계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기간 중 사회주의 정당이든 자유주의 정당이든 가족은 사회의 토대라고 믿었다. 도덕적 물질적 향상은 가족 내에서 성에 따른 역할 분담에 의해 충족되었다. 즉 남편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아내는 집 안 일을 책임지는 등 부부 간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었다.

이에 반해 제2차 인구변천은 보다 높은 수준의 욕구에 기초하고 있다. 일단 기초적이고 물질적인 욕구 수준이 만족되면 추가적인 소득의 향상과 교육의 연장은 보다 존재론적이고 정서적인 욕구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목표를 공식화하는 자아실현, 수단을 선택하는 개인적 자율성, 그리고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인식의 주장 등의 조합으로 모아질 수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며, 이는 왜 제2차 인구변천이론이 관념적인 혹은 문화적인 변동과 연관되는지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예를 들어 제2차 인구변천은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 정치적 혹은 종교적 중심으로부터의 탈피, 시민 공동체 지향의 결사체로부터의 해방, 권위에 대한 비판적 자세, 사회화와 일에 대한 정서적 가치의 강조, 성적 평등 추구 등의 사고와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이와 비슷하게 단독 가구 형성, 동거 등 새로운 가족 형태의 선택은 개인주의적인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새로운 가족 형태와 가치관의 확산은 북서 유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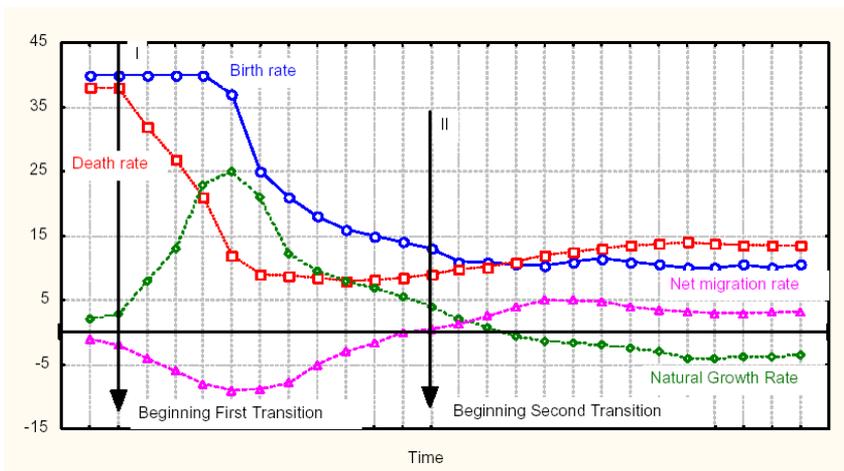
서 뿐만 아니라 남부 및 중동부 유럽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 제2차 인구변천의 특성

제2차 인구변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산업화된 국가가 출산력을 완전하게 통제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부부가 하나 혹은 두 명의 자녀를 갖고자 하는 동기가 부족하여 출산력이 대체수준 이하로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매우 낮은 수준의 출산력을 보이는 곳에서는 출산 연기를 가져오는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반면 세대를 대치하는데 필요한 출산력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인구학적 불균형을 가져오며, 이러한 불균형의 영향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불균형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 인구학적 균형 방정식에서 제3의 요인으로 인식되어왔던 이주(migration)가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게 된다.

제1차 인구변천과 제2차 인구변천의 기본적인 차이는 제1차 인구변천이 사망력 감소의 장기적인 결과인데 반해 후자는 출산력 감소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보다 낮은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결과로 해석되는데 있다.

<그림 1> 제1차 인구변천과 제2차 인구변천 모델



자료: Van de Kaa (2002) p.2

〈그림 1〉은 전통적인 인구변천 모델에서 이주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게 보일 수 있다. 즉 전통적인 모델에서는 인구증가는 사망률이 감소하는데 비해 출산율 감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됨에 따라 급격한 인구증가를 가져온다고 본다. 그러나 이 모델은 당시 급속한 인구증가 기간 동안 유럽의 인구는 전 세계로 흩어져 새로운 세계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갔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예를 들어 Chesnais(1992)는 1846~1932년 사이 5,00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유럽을 떠나 미국, 캐나다, 오세아니아 등지에 정착했음을 보여주었다. 당시 유럽 사회로부터 타 대륙으로의 이주는 급격한 인구증가 압력을 완화시키는 안전판 역할을 했다.

제2차 인구변천의 기본 가정은 제2차 변천을 겪고 있는 산업화된 국가의 경우 사망률이 출산율을 상당기간 상회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망률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 추이에 따라 증가할 것이며, 출산율은 재생산 가능한 여성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러한 여성들이 출산한 아이들도 대체수준 이하로 남을 것이라는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지난 30년 동안의 출산력 감소는 산업국가의 연령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 결과 노동력 부족을 겪은 서부 유럽의 경우 남부유럽과 터키, 모로코 등으로부터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였다. 사실상 이민은 1990년대 초부터 인구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에서 제2차 인구변천에서 주목받게 되었다. 이민은 산업국의 인구구조와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1차 인구변천의 경우 사망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제2차 인구변천에서는 출산력과 사망력 모두 규범적 변화에 의해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 규범적 변화란 특히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강조하는 가치체계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건강한 삶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조기 사망을 막으려는 사회분위기는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 개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의 원칙이 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²⁾ 여러 산업국가에서 나타나듯이 출산력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은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으로 편입되는 젊은 인구층의 감소와 인구 구성의 변화는 해

2) 사망률을 주로 다루는 전문가들은 1970년 경에 사망력 감소의 세 번째 국면이 시작되었다고 믿는다. 이는 개인들이 조기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규칙적인 운동, 지나친 음주 삼가, 금연 등 습관의 변화는 좋은 예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평균수명은 대부분 산업국가에서 놀랄 만큼 증가했다. 1970년에서 1990년 대 말 사이 유럽 여성의 평균수명은 80세를 넘었으며, 남성의 경우도 75세에 이르렀다. 가장 높은 평균 수명을 보이는 일본 여성은 84.9세에 이르렀다.

의 노동력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일반적으로 높은 인구성장이 낮은 삶의 질과 자본의 부족과 연관되듯이 산업국가는 해외로부터의 노동력 수입과 관련된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었다.

서부 유럽의 경우 제2차 인구변천 기간 동안 가족형성과 연관된 사항들인 결혼, 출산, 동거 등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를 보였다.

(1) 가족형성의 일반적 측면

오늘날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결혼은 20-30년 전보다 훨씬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다. 따라서 아이를 둘 혹은 그 이상 갖고 싶은 남성과 여성 모두 별거나 이혼 때문에 그 희망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사실상 결혼은 1960년대 보다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기 힘들게 되었으며, '가족의 소멸'까지 예상하기도 한다. 사실상 첫 번째 혼인 비율이 감소하지 않은 국가는 없으며, 평균 초혼 연령이 증가하지 않은 국가도 없는 상황이다.

결혼의 불안정성은 이혼율과 동거의 증가에서도 잘 드러난다. 동거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거는 이제 더 이상 일탈행위로 인식되지 않으며, 결혼 전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형태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Liefbroer와 Fokkema (2008)는 1994년 2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적 사회조사에서 젊은 층 응답자(18-35세)의 대부분이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함께 동거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밝혔다. 당시 동거는 그렇게 흔한 현상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후 최근까지 동거에 대한 관용적인 자세는 꾸준히 증가했다. 이혼율 역시 산업국가 대부분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인다. 미국, 스웨덴, 핀란드, 라트비아 등은 50% 이상의 높은 이혼율을 보인다.

혼전이든 이후든 동거와 삶의 새로운 방식은 단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조건 혹은 여성의 고용 증가의 결과로서 뿐만 아니라 보다 교육을 많이 받은 남성과 여성의 탈권위주의적 성향과 세속적 성향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이들은 자아실현, 개인주의적이고 감성적인 지향, 자기인식의 필요 등과 같은 Maslow의 고차원의 욕구 혹은 Inglehart의 강력한 탈물질주의적 성향 등을 중요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더 나아가 제2차 인구변천은 결혼과 부모 되기의 지속적인 연기와 혼외 출산이라는 특성을 포함한다. 제1차 인

구변천 기간 동안의 출산억제가 자녀를 많이 갖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던 데 반해 제2차 인구변천 기간 동안의 출산억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과 고소득을 위해서 부모 되기를 연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 시기의 출산억제는 또한 자기표현을 위한 소비의 증가, 친구 및 동료의 획득, 열린 미래의 확보 등의 이유에서 이루어진다.³⁾

(2) 출산의 고령화와 출산 수준의 변화

출산 속도(tempo)의 변화는 196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출산력 감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출산연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의 평균 연령은 어디서나 높아졌다. 1999년의 경우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평균 연령은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등에서 28세를 넘어섰다.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현재 30세를 넘기고 있으며, 이렇게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의 연령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연령별 출산력에서도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20-24세 사이의 출산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35-39세 사이의 출산력은 초기에 감소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젊었을 때 출산하기보다는 이후에 출산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출산력 변화에서 중요한 의문의 하나는 출산 연기가 완성된 코호트 출산력 수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며, 이 출산력이 결국 대체수준에 필요한 출산력보다 낮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Frejka와 Calot (2001)는 29개 산업국가의 1960-1961년에 출생한 여성의 출산력을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출산력 2.10 이상의 국가는 뉴질랜드(2.34), 유고슬라비아(2.26)로 나타났다. 북부 및 서부 유럽, 이전의 사회주의권 국가들,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등에서는 대체출산력 수준에 근접한 출산 수준을 보였다. 이에 비해 1.80 이하 수준을 보인 국가는 남부 및 중부 유럽 국가들과 일본을 나타냈다. Bongaarts(2001)의 “부부가 두 자녀를 지속적으로 갖기를 원하는 국가에서조차 출산력 대체수준에 이를 만큼 출산력이 증가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견해는 매우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인구변천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출산력 수준과 추이와

3) 출산연기는 출산력을 단기적 혹은 일시적으로 대체수준 이하로 이끌 뿐만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코호트 출산력을 대체수준 이하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은 다시 이민(replacement migration)에 대한 필요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제2차 인구변천은 서구 사회를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변화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Van de Ka, 2002; Lesthaeghe and Surkyb, 2006).

연관되어 있다. 첫째, 제2차 인구변천은 현대 피임의 확산에 의해 촉진된 '부모되기'의 연기를 가져왔다. 피임의 확산은 부부가 생활의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둘째, 동거와 결혼의 불안정성의 결과 제2차 인구변천은 많은 혼외 출산을 가져왔다. 셋째, 제2차 인구변천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체수준의 이하의 출산력 수준을 가져왔다. 비록 제2차 인구변천이 인구학적 변화에 있어 다양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중 저출산은 제2차 인구변천의 가장 특징적인 측면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몇몇 국가에서는 코호트 출산력이 대체수준의 출산력에 근접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기간 출산력과 코호트 출산력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도 완성된 출산력이 대체수준의 출산력에 근접한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1970년대 초에 태어난 코호트가 평균 2명의 자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2차 인구변천이 반드시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프랑스도 부모되기의 연기, 결혼의 불안정성 증대, 혼외 출산의 증가, 피임의 증가 등 저출산을 가져오는 사회인구학적 변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출산력을 유지하고 있다. 제2차 인구변천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 역시 출산력이 대체수준에 근접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력 수준을 보이는 국가들의 하나이다.

오늘날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및 초저출산은 장기적으로 계속될 출산연기, 개인의 출산결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구조적 제도적 제약 사항들, 그리고 가족규모에 대한 규범 변화 및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수준을 향한 열망 등 3가지 요인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출산연기의 경우 제2차 인구변천이 이미 진행된 국가의 경우 그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대체수준의 이하의 출산을 향한 열망이 결코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두 번째 요인인 구조적 제도적 제약 사항들이 초저출산을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한다. 한편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은 가족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핵심적인 사항들은 아니라는 점에서 제2차 인구변천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중요성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설명해 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제2차 인구변천과 높은 연령층에서의 출산력의 긍정적 관계 혹은 사회경제적 발전과 출산력 간의 긍정적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의 한 측면인 무자녀 비율의 증가는 제2차 인구변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인생에서 부모가 되는 것이 더 이상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호하는 추세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또한 미래에 자녀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 결정을 내리

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높이고 있다.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호하는 추세는 독일에서 널리 확산되었으며, 특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성의 경우 무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3) 피임 실천과 인공유산

대부분의 산업국가에서 남녀가 최초로 성적 관계를 맺는 연령은 예전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 예를 들어 1972-73년 사이에 태어난 남성은 18세 혹은 이보다 적은 나이에 최초로 성적 관계를 맺는 비율이 1932-1941년 사이에 태어난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1932-1941년 사이에 태어난 여성이 최초로 성적 접촉을 한 나이가 20세 이후인데 반해 1970년대에 태어난 여성들은 평균 16세 혹은 17세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산업국가에서 공식적 결혼 밖에서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더 이상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임신을 막기 위해 하는 현대적인 피임 방법을 실천하는 비율도 증가했다. 이에 비해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비율은 감소했다. 물론 피임 방법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의 불임 시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국가가 있는 반면 콘돔, IUD, 필 등이 선호되는 국가가 있다.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의 73%가 피임을 실천하고 있으며, 현대적인 피임의 확산은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된 제2차 인구변천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⁴⁾

경구 피임약과 같은 피임의 확산은 성, 출산 및 결혼을 분리하는데 도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성적 행위와 재생산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서구 사회에서 성적 행위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젊은 어른들 사이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4) 가족생활, 자녀양육과 연관된 가치와 태도의 변화

유럽의 경우 가족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와 함께 자녀양육,

4) 현대적인 피임은 유럽 전 지역에서 널리 확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특히 중동부 및 남동부 유럽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피임약 및 피임도구의 사용은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같은 카톨릭 인구가 많은 국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다. 폴란드의 경우 피임 사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 역시 종교적으로 깊이 몰입된 여성의 경우 산해제한과 혼전 성관계 등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카톨릭 교회의 영향이 강한 이탈리아의 경우도 피임의 확산이 늦게 진행되고 있다.

가족생활, 성적 관심과 연관된 가치와 태도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났다. 가족에 관련된 가치변화의 중요한 측면으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즉,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무자녀 가정의 증가, 결혼과 가족생활이 선택 사항으로의 변화 등이 좋은 예이며,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부모가 된다는 것과 결혼이 여전히 가치 있고 바람직하게 여겨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녀와 부모는 대부분의 사회뿐만 아니라 이미 제2차 인구변천이 진행된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자발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경우는 예외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배우자의 안정성이 점차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생활은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론 뒤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생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이 주요하게 여겨졌던 생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고 있는 반면 레저와 친구가 더 중요하게 간주되어 자녀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무자녀 가정의 증가는 지금까지 행복하고 자아만족을 위해서는 자녀가 꼭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생각이 지속되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부모가 되고자 하는 동기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자녀를 갖는 것은 더 이상 사회를 위한 의무가 아니다. 그 대신 임신은 부부의 라이프스타일, 경제적 안녕, 개인적 관계 등에 미칠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부부의 주의 깊게 계획된 결정의 결과로 해석된다. 현대적 피임의 중요성은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과거 '자녀를 갖는다'는 생각에서 '자녀를 맞이하는' 결정으로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부모가 되기 위한 선결조건을 필요로 하며, 보다 책임감 있는 부모를 강조하게 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3. 사회변동과 제2차 인구변천

제1차 인구변천의 주요한 동인이 사회변동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변동은 제2차 인구변천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변동은 구조적, 문화적, 기술적 3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Van de Kaa, 2002). 구조적 측면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진보를 포함하며, 문화적 측면은 인구의 문화적 특성과 가치체계에서의 변화를 의미하고, 기술적 측면은 기술의 향상 및 응용을 포함한다. 이

3가지 측면은 모두 앞에서 검토한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로부터 복구한 후 나타난 소득의 증가와 복지국가의 탄생은 사회변동의 중요한 예이다. 또한 서비스 영역의 확대와 같은 산업화 과정에서의 변화, 통신기술 및 정보처리의 향상 등도 인구학적 변화를 설명하는데 중요하다. 부, 소득, 물질적 자원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생각의 변화도 인구학적 변화에서 중요한 측면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배우자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인생의 다른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인생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질문들은 제2차 인구변천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위의 질문들과 연관되어 다음과 같은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효과적인 피임에 의해 가능하게 된 이른바 출산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영향을 들 수 있으며, 의학적으로 안전한 인공유산은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자유로움'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피임과 인공유산은 사람들로 하여금 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부부의 삶을 풍족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될 때에만 아이를 갖게 만들었다. 더 나아가 이 둘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해야 한다는 걱정 없이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인공유산은 피임에 실패하여 원하지 않는 임신이 됐을 때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둘째, 새로운 피임기술의 확산과 연관된 것으로 가치체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치체계의 변화는 근본주의자 혹은 실용주의자, 보수적 혹은 진보적, 물질주의(materialism) 혹은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로 분류한 Inglehart의 논의는 제2차 인구변천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즉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의 변화는 기성사회에 반발하고 개인과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자아발전과 자아성취의 생각이 강하다는 점에서 제2차 인구변천의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Inglehart의 논의는 탈근대주의 출산력 선호성(postmodern fertility preferences)과 연관될 수 있다. 여기서 탈근대성은 가치지향을 의미하는 세계관과 새로운 시대, 즉 탈근대성의 시기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시대정신을 모두 포함한다. 탈근대성의 시기는 근대성의 시기 다음에 이어지는 시기로 경제적 안정성, 매우 높은 생활수준, 그리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리더를 선출하는 기회의 보장 등을 특징으로 한다. Inglehart가 주장하듯이 탈근대주의와 함께 새로운 세계관은 산업혁명 이후 산업사회를 지배했던 세계관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정치, 산업, 종교, 가족, 그리고 성적 행위 등을 지배해왔던 기본적인 규범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는 Lesthaeghe와 Van de Kaa가 주장하는 제2차 인구변천의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탈근대주의의 본질적인 차원을 구성하는 가치체계의 변화는 제2차 인구변천을 설명하는 중요한 준거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가치체계는 사회변화 속에 포함되는 구조적 및 기술적 요인과 결코 유리될 수 없다.

Van de Kaa는 탈근대주의의 다양한 특성들과 인구학적 변수들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탈근대주의의 수준과 피임 사용, 동거비율 등의 관계를 밝히면서, 탈근대 시대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개인의 전문적인 활동과 학업 등에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탈근대주의는 임신 평균연령과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 한편 탈근대주의가 고도로 발달되지 않았으며 사회변화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출산력이 낮을 수 있다. 또한 사회변화의 측면 예컨대 위기의 상황이 진정되면 출산력은 다소 증가할 수도 있다. 이렇듯 탈근대주의가 출산력과 반드시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자녀를 갖고 양육하는 것은 탈근대주의적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되는 일은 자아실현을 충족시키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이 제2차 인구변천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반드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부가 자녀를 갖고 양육하는 일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인식할 때 그리고 자녀에게 관심을 보이고 키우는 일이 그들의 삶을 풍족하게 할 것이라고 느낄 때에만 출산력이 상승할 것이라는 점이다.

제2차 인구변천을 겪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도 인구학적 상황은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일본은 동거, 혼외 출산 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며, 결혼이 매우 늦어지거나 결혼 비율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일본에서 탈근대주의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거나 최초로 성적 접촉이 일어나는 시기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일본 여성들에게 결혼은 매력적인 것이 아니며, 비동거 관계가 좋은 대안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남부 유럽의 경우 제2차 인구변천은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출산력은 예외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동거, 이혼, 혼외 출산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제2차 인구변천에 관한 논란은 주로 제1차 인구변천과 제2차 인구변천이 과연 '제2차'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둘 사이의 차이가 분명한 것인지 혹은 제2차 인구변천은 단지 제1차 인구변천의 연속성 상에 불과한 것인지 등에 관한 것이다. 우선 제2차 인구변천의 구조적, 문화적 특성들은 제1차 인구변천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제1차 인구변천에서 제2차 인구변천으로의 변화는 일정하거나 단일한 형태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제2차 인구변천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제1차 인구변천과 제2차 인구변천은 각기 뚜렷한 역사적 국면을 지니고 있으며, 그 결과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대체출산력 이하의 상황이 계속되면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사회보장체계가 문제될 것이라는 걱정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가족 체계의 불안정성은 특히 홀로 된 엄마에게 새로운 형태의 배제와 빈곤의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이와 함께 제2차 인구변천은 보다 많은 이민자들을 필요로 할 것이며, 이민자들의 급증은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일반적으로 제1차 인구변천이 사회통합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는 점과 크게 대비되는 측면이다.

4. 제2차 인구변천 이론에 대한 비판

제2차 인구변천의 개념은 출산력 변천과 가족과 관련된 태도와 행위의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는데 중요한 시각을 제공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이 개념은 인구학자들 사이에서 개념과 이 개념이 지니고 있는 기제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예컨대 변천이 실제로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변천을 정의내릴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었다. 개념 정의의 문제와 함께 변천의 핵심 요소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지적에 대해 Van de Kaa는 출산력이 대체수준 이하라는 점이 제2차 인구변천의 핵심 요소이긴 하지만 영구적인 상태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제2차 인구변천이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어 일반적인 틀로 설명하는데 무리가 따른다는 비판도 주목할 만 하다. 이와 비슷하게 제1차 인구변천과 제2차 인구변천 사이의 불연속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제2차 인구변천이란 없으며 단지 기존의 인구변천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전개된 인구학적 변화는 근대화와 연관된 재생산 형태에서의 변화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한다.

제2차 인구변천은 제1차 인구변천과 달리 새로운 균형상태를 상정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제2차 인구변천이 언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Van Bavel(2007)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 저출산 자료를 이용하여 오늘날 제2차 인구변천과 연관되어 자주 언급되고 있는 대체출산력 이하의 요인들인 세속화,

결혼, 소비, 경제적 열망의 증가 등에서의 변화, 일과 양육 사이의 갈등 등에 주목하였다. 또한 변천이라는 용어는 서로 상이한 사회가 인구학적 측면에서 결국에는 한 곳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제2차 인구변천을 주장하는 Lesthaeghe와 Van de Kaa는 변천의 특정 시점이나 종착점을 정의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제2차 인구변천에서 주장하는 것은 변천의 시점이나 종착점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일반적인 경로의 방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제2차 인구변천이론은 여러 국가들과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가족 형태와 인구학적 특성의 측면에서 결국에는 유사한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내용을 지니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사실상 제2차 인구변천이론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출산력과 가족 형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반해 국가별 경향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가족형태에서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가족과 출산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변화는 제2차 인구변천 모델로 간단하게 해석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De Beer, Corijn and Deven 2000; Micheli 2004). 특히 Micheli는 유럽에서의 가족 형태는 지역적으로 강한 특성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북유럽과 달리 남부 유럽에서는 근대화가 가족형태에 있어서 친족 간 제휴를 되살리는 데 이바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행위와 가치의 변화 사이의 가설화된 동시성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Rotariu(2006)는 루마니아의 경우 출산율, 출산연기, 혼외 출산 등으로 나타나는 행위의 변화가 가족과 자녀에 관한 가치와 태도체계에 있어서 변화보다 앞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한다.

제2차 인구변천이론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이론의 적용이 북서유럽의 경우에 한정될 뿐 다른 지역으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대해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의 경우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에서의 적용에는 무리가 없음이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족과 관련된 행위와 태도에 있어서 북서유럽 국가들과 한국과 일본 같은 산업화된 아시아의 국가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개념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예컨대 Coleman (2004)은 제2차 인구변천이론은 주로 삶의 양식에 대한 변화에 대한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인구학적'이라는 수식을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2차 인구변천 이론은 문화적 해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제2차 인구변천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한국과 일본 등

과 같은 저출산 국가와 유럽 중부, 동부 그리고 남부 유럽 전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가구 형태와 가치관의 변화 역시 중요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⁵⁾

한편 “미국의 경우는 제2차 인구변천에서 예외적인 상황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2차 인구변천에 관한 논의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다.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50년 유럽 15개국의 인구가 현재 3.82억 명에서 절반 이상이 감소하는데 반해 미국의 인구는 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1981년 1.81에서 2001년 대체수준 이상으로 상승하였으며, 오늘날에도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산업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EU 25개국과 일본의 경우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이민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의 인구는 계속 성장할 것이며,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덜 심각해질 것이다. 또한 미국은 다른 산업국가들이 지난 25년 동안 겪었던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5 이하)에 따른 부정적인 인구성장동력을 쉽게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이러한 상황을 Carson(2005)은 ‘인구학적 예외’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유럽과 일본이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지난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결혼과 자녀출산을 주저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이후 이러한 추세는 역전되어 혼인율이 상승하고 출산율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합계출산율이 2.0 수준에 이르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가능하다. 비록 히스패닉이 아닌 백인의 출산력이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1.8 주변에 머무르게 되고, 이 정도의 출산 수준은 미국 전체 인구의 1/4을 차지하는 흑인과 히스패닉 인구의 높은 출산력이 더해지면 전체 합계출산율을 대체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예컨대 히스패닉 인구의 출산력은 1990년 2.7에서 2.9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흑인 출산력이 미국 전체의 출산력 제고에 미친 영향은 히스패닉의 경우에 비해 덜 중요하다. 이는 흑인의 출산력이 지난 십년 동안 대체수준에 근접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Sutton and Mathews, 2004). 결국 미국 역시 제2차 인구변천의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는 바, 다만 이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민자들의 높은 출산력이 비히스패닉과 흑인 등 기존 미국인들의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 수준을 상쇄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5) 제2차 인구변천이 특성들은 유럽,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산업사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혼의 연기와 이에 따른 출산의 연기, 일본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동거의 증가뿐만 아니라 비서유럽 산업국가 혹은 산업화를 겪고 있는 국가에서도 제2차 인구변천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제2차 인구변천은 단지 북서유럽에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III. 제2차 인구변천과 한국의 출산력 변천⁶⁾

제2차 인구변천에 대한 논의는 인구변천을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인구학적 변화를 밝히는데 중요하며, 인구학적 변화가 이 지역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제2차 인구변천은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인구변천 과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급격한 출산력 감소이다. 한국은 1983년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선진국 수준의 저출산 단계에 진입하였고,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8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 수준인 1.19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30대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출생아수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20대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⁷⁾ 출산 순위별로는 첫째아의 감소가 출생감소의 74.1%를 차지하였으며, 둘째아 이상은 25.9%를 차지하였다. 출생아 수 감소와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는 제2차 인구변천의 틀 속에서 살필 수 있다. 예컨대 가임여성인구 특히 주출산층(20~39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젊은층이 결혼, 임신 및 출산을 지연하고 있으며, 만혼화로 인한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⁸⁾

그러나 제2차 인구변천의 틀을 이용하여 한국의 출산력 변천을 설명하는 연구는 그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관련 변수들의 측정이 곤란하여 이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거나, 제2차 인구변천의 내용 중 일부 측정 가능한 변수와 출산력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 출산력이 대체수준 이하로 저하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2차 출산력변천의 개념을 도입한 김두섭(2005)의 연구는 주목할 만 하다. 그는 제2차 출산력 변천에서는 제1차 출산력 변천과 달리 사망력의 저하와 인구이동의 영향이 축소된 반면 가치관과 태도의 역할이 크게 강조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⁹⁾ 즉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 새

6) 한국에서는 제2차 인구변천이라는 용어보다는 제2차 출산력 변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최근 한국의 인구변천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출산력 변천이 인구변천의 핵심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7) 20대의 경우 262천 명에서 242천 명으로 20천 명이 감소하여 전체 감소분의 81.5%를 차지하였으며, 30대의 경우는 264천 명에서 259천 명으로 5천 명이 감소하여 전체 감소분의 18.5%를 차지하고 있다.

8)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1998년 28.48, 2007년 30.59, 2008년 30.84세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9) 제 1차 출산력 변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소로는 초혼연령의 상승, 인공유산의 증가, 피임도구의 보급 등을 들 수 있다(김두섭, 2005).

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이 한국의 급격한 출산력 저하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보았다.¹⁰⁾

이 연구는 1980년 대 중반 이후의 출산력 저하는 경기 후퇴에 따른 불안정한 노동시장, 가족형성의 지연과 약화,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 등의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경기불황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혼인과 첫 출산의 시기를 연기하거나 자녀 간 출산 터울을 넓히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한국이 최근 초저출산 수준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불황과 높은 실업률이 출산력 저하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연구결과에서 잘 드러난다.¹¹⁾ 둘째, 가족형성의 지연과 약화는 결혼의 지연, 유배유자 비율의 감소와 이혼의 증가 등을 의미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장래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는 결혼과 첫 출산 시기의 지연으로 나타난다. 유배유자 비율의 감소와 이혼의 증가는 자기중심적 삶을 지향하는 젊은이들의 가치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출산력 저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제2차 인구변천의 기본 내용은 개인의 자아실현 욕구, 전통적 권위로부터의 자유, 개인적 취향의 충족과 같은 가치관이나 태도에 의해서 출산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저출산에 대한 설명이 주목받고 있다(McDonald, 2000). 특히 교육과 고용 부분에서 여성차별의 감소와 자녀양육에 대한 여권 확대는 한국의 출산력 저하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장래인구정책에 대한 방향도 제시되었다.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초점을 청년인구가 빨리 결혼하고 출산하도록 유인하는데 우선적으로 맞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시장의 안정, 교육제도의 전반적 개선,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등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변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앞의 논의를 기초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 유삼현(2006)의 연구도 한국의 제2차 출산력 변천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지역별 차별출산력을 분석하고 있는 이 연구 역시 양성평등의 관념,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가족형성 등을 저출산 인과구조의 결정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

10) 결혼, 동거, 이혼 및 부부의 성역할 등 한국의 가족 가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를 시도한 은기수·이윤석(2005)의 연구는 제2차 인구변천에서 제시된 가족형성과 연관된 가치관 및 태도를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1) 경제위기와 저출산 문제는 이성용(2006)과 김두섭(2007)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안정성은 가족형성과 출산력을 낮추는 부(-)적 관계를, 가족형성은 출산력을 높이는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성평등 관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가족형성을 매개로 출산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출산력 저하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의 출산력 감소의 추세, 결정요인, 정책적 함의 등에 관한 박경애(2006)의 논의도 제2차 출산력 변천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출산력 감소의 결정요인으로 개인주의와 사회경제적 변화를 선행변인으로 보고 성역할, 가족형성, 자녀에 대한 가치관 등을 중간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여성의 대학 진학률과 경제활동참여율, 일과 가족의 양립불가능성, 혼인 및 출산 연기, 남아선호도, 이혼 및 재혼, 자녀 양육 및 자녀 교육 비용 등의 변수 등이 출산력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성 형평성과 둘째 출산과의 관계를 밝힌 박수미(2008)의 연구도 성 평등의식의 확산이 제2차 인구변천에서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젊은이들의 성 평등 의식과 기존의 가족규범 사이의 격차가 커지면서 젊은이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결혼을 통해 구성되는 가족은 더 이상 필수적인 문제도, 매력적인 유인 요소도 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기혼취업 여성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이 연구는 가족 내 성 형평성 여부가 둘째 출산 계획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양성 평등의 실현이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제2차 출산력 변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저출산이다.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 중 결혼율의 감소, 초혼 연령의 상승, 이혼율의 상승, 소자녀 가치관 등 가족형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앞서 논의한 제2차 인구변천 내용에 포함된 인구학적 변수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러한 변인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유럽 사회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양성평등의 관념,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자녀 양육 및 교육 비용 등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을 이해하는데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큰 변인이다.

출산력 제고를 위한 정책은 저출산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가족형성과 관련된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결혼의 중요성, 삶에 있어서 자녀의 중요성 등에 관한 가치관이 널리 확산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가족형성 관련 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양성평등 관념의 정착과 노동시장의 안정성의 제고, 그리고 자녀 양육 및 교육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두섭 (2005)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과 그 인과구조” 《인구와 사회》 1(1): 23-53. 한양대학교 인구 및 고령사회연구소.
- _____ (2007) 《한국의 경제위기와 출산력 변화》 집문당.
- 박경애 (2006) “한국의 출산력 감소: 추이, 결정요인 및 정책적 함의” 《인구와 사회》 2(2): 77-113. 한양대학교 인구 및 고령사회연구소.
- 박수미 (2008) “둘째 출산 계획이 결정요인과 가족내 성 형평성” 《한국인구학》 31(1): 55-74. 한국인구학회.
- 은기수·이윤석 (2005) “한국의 가족가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인구학》 28(1): 107-132.
- 유삼현 (2006) “지역별 차별출산력의 분석: 저출산 인과구조의 이해” 《인구와 사회》 2(2): 53-76. 한양대학교 인구 및 고령사회연구소.
- 이성용 (2006) “경제위기와 저출산” 《한국인구학》 29(3): 111-138. 한국인구학회.
- Bauman, Z. (2000) *Liquid modernity*. Polity Press, Cambridge.
- Bongaarts, J. (2001) “Fertility and reproductive preferences in post-transitional societies” pp. 260-282. In: R.A. Bulatao and J.B. Casterline (eds.), *Global Fertility Transition*, Supplement to PDR, vol. 27, New York, Population Council.
- Carlson, A.C. (2003) “The fertility gap: Recrafting American population,” *Family Policy Lectures*, Family Research Council website, 14 December: 1-14.
- Coleman, D. (2004) “Why we don't have to believe without doubting in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 some agnostic comments,”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2004: 11-24.
- De Beer, J., M. Corijn and F. Deven (2000) “Summary and discussion,” In: J. De Beer and F. Deven (eds.) *Diversity in family formation: The 2nd demographic transition in Belgium and in the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Dordrecht, 115-130.
- Chenais, J.C. (1992) *The demographic transition: Stages, patterns and economic implications*. Oxford, Clarendon Press.
- Eurostat (2006) *Population Statistics 2006* edition.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Freijka, T. and Calot, G. (2001) "Cohort reproductive patterns in low-fertility countr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1): 103-132.
- Giddens, A. (1992)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Polity Press, Cambridge.
- Goldin, C. (2006) "The quiet revolution that transformed women's employment, education, and family," *American Economic Review* 96(2): 1-21.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esthaeghe, R. (1995)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Western countries: An interpretation", In: K.O. Mason and A.M. Jensen (eds.) *Gender and family change in industrialized countries*. Oxford, Clarendon Press, pp. 17-62.
- Lesthaeghe, R. and van de Kaa, D.J. (1986) Two Demographic Transitions? In: D.J. van de Kaa and R. Lesthaeghe (eds.), *Population: Growth and Decline*, pp.9-24. Van Loghum Slaterus.
- Lesthaeghe, R. and J. Surkyn (2004) "When history moves on: The foundation and diffusion of a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aper presented at the seminar on "Ideational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family change". Population Studies Cente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 Lesthaeghe, R. and L. Neidert (2006)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the United States: Exception or textbook exampl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2(4): 669-698.
- Lesthaeghe, R. and K. Neels (2005) "From the first to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An interpretation of the spatial continuity of demographic innovation in France, Belgium and Switzerland", *Interface Demography*, Vrije Universiteit Brussel, Pleinlaan 2. B-1050 Brussels, Belgium.
- Liefbroer, A.C. and T. Fokkema (2008) "Recent developments in demographically relevant attitudes and behavior: New challenges for a new era?" In: J. Surkin, P. Deboosere and J. van Bavel (eds.) *Demographic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A state of art in demography*. Brussels: VUBPRESS, pp. 115-141.
- Lutz, W. and V. Skirbekk (2005) "Policies addressing the tempo effect in

- low-fertility countr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1(4): 699-720.
- Lutz, W., V. Skirbekk, and M.R. Testa (2006) “The low fertility trap hypothesis: Forces that may lead to further postponement and fewer births in Europe”, *Interim Report*,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 Analysis, IR-06-017.
- McDonald, P. (2000) “Gender equity, social institutions and the future of fertility”,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17(1): 1-15.
- _____ (2005) “Low fertility in Singapore: Causes, consequences and policies,” Paper presented at the *Forum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n East Asia*, Beijing, May 16-17, 2005.
- Micheli, G. (2004) “On the verge of familistic interpretation, moods and other alchemies”, In: G. Dalla Zuanna and G. Micheli (eds.) *Strong family and low fertility: A paradox* *European Studies of Population* Vol. 14, Kluwer Academic Publishers, Dordrecht, pp.127-160.
- Rotariu, T. (2006) “Romania and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The traditional value system and low fertility r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36(1): 10-27.
- Sutton, P. and T.J. Mathews (2004) “Trends in characteristics of births by state: United States, 1990, 1995, and 2000-2002,” *National Vital Statistics Report* 52(9). National Vital Statistics System and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Van Bavel, J. (2007) “Subreplacement fertility in the West before the baby boom (1900-1940: Current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Paper presented at the 32nd Annual Meeting of the *Social Science History Association*, Chicago IL., Nov. 18, 2007.
- Van de Kaa, D.J. (1987) “Europe’s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Bulletin*, 42(1) Washington, The Population Reference Bureau.
- _____ (1994)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revisited: Theories and expectations pp.81-126 in: G.C.N Beets et al. (eds) *Population and Family in the low Countries 1993: Late fertility and other current issues*. NIDI/CBGS Publication, No. 30, Swets and Zeitlinger, Berwyn, Pennsylvania/Amsterdam, pp.81-126.
- _____ (2001) “Postmodern fertility preferences: From changing

value orientation to new behavior, pp. 290-332 in: R.A. Bulatao and J.B. Casterline (eds), *Global Fertility Transition*, Supplement to PDR, Vol. 27, New York, Population Council.

_____ (2002) "The idea of a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Industrialized Countries" Paper presented at the Sixth Welfare Policy Seminar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Tokyo, Japan, 29 January 2002.

_____ (2004) "Demographic revolutions or transitions: A foreword," In: T. Frejka and J.P. Sardon (eds.) *Childbearing trends and prospects in low-fertility countries: A cohort analysis*,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pp. x-xiv.

[2009. 1. 19 접수 | 2009. 3. 20 채택]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Industrialized Countries

Sung-Ho Chung

The first demographic transition refers to the historical decline in mortality and fertility, as shown from the 18th Century in several European populations, and continuing present in most developing countries. The end point of the first demographic transition(FDT) was supposed to be a stationary and stable population corresponding with replacement fertility and zero population growth. In addition, households in all parts of the world would converge toward the nuclear and conjugal types, composed of married couples and their offspring.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SDT), on the other hand, sees no such equilibrium as the end-point. Rather, new developments bring sub-replacement fertility, a multitude of living arrangements other than marriage, and the disconnection between marriage and procreation. Populations would face declining sizes if not complemented by new migrants. Over the last decades birth rates have been on the decline in all countries of the world, and it is estimated that already more than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has below replacement level fertility. Measured in terms of the Total Fertility Rate (TFR), currently 34 countries have fertility levels of 1.5 or less. Similarly, Korea has been below lowest-low fertility for eight consecutive years since 2001 and below the replacement level for more than twenty years. In explaining the low fertility in Korea, some researchers explain the low fertility as revenge against a male-dominated society and institution, while others focus the impact of the employment instability. These studies share the basic ideas (spread of individualism, delayed marriage and childbearing, high divorce rate etc.) of a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order to explain the low fertility in Korea.

Key Words: first demographic transition,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stable population, replacement fertility, low fertility